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표창

정읍시가 '뇌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물'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관리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11일 전주 그랜스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광역·치매안심센터 발전 워크숍'에서 2024년 치매관리사업 우수 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이번 워크숍은 도내 14개 치매안심센터가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치매관리사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정읍시는 지역 특산 임산물을 활용한 원예활동 프로그램 '뇌건강 깨우는 자연의 산물'을 사례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참여자들의 흥미와 인지기능을 동시에 자극하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정량·정성지표를 종합한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52회 고창  
모양성제', 대행사 선정

고창군은 '제52회 고창모양성제(10월29일~11월2일)' 성공 개최를 위해 축제 운영 대행사를 선정했다.

이번 대행사는 공개 입찰을 통해 지난 10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했다.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 홍보,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고창군과 함께 축제를 이끌게 된다.

평가 요소는 △행사 기획력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재난안전 대책 및 교통관리 대책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의 지표 등으로 지원사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세심한 평가와 논의가 이뤄졌다.

고창군은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6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착수보고회를 거쳐 본격적인 축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농생명산업지구 최종선정

고창군 김치특화지구, 현장·서류평가 통해 지구조성비 50억원 최종 확보

고창군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가 전북자치도의 농생명산업지구로 최종 선정돼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11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사시사철 김치특화지구 사업'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최종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됐다.

특히 지정된 농생명산업지구 간 차별화 조성계획에 대한 기반조성 현황 등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통해 지구조성비 50억원을 최종 확보하였다.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16ha)'는 김치원료 공급단지, 발효 및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 3개의 핵심 거점을

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고창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김치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산업 육성, 김치 원료의 유통 허브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확보된 조성사업비로는 △기업육성을 위한 김치 원료산업 기반조성 △김치가공업체 육성 △김치소재 산업 조성 △고창군 김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배추수확 농기계 자동화 성능개선사업 △김치 부산물의 우수성 규명 연구 등이 이뤄진다.

이에 더해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사시사철 김치특화 농생명산업지구의 성공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김

치소재 개발, 원료 우수성 연구, 농가 조직화 및 산업화에 앞장선다.

농생명산업지구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따라 마련한 개념으로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을 집적화해 산업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생산·가공·유통·문화·체험 등 모든 기반산업을 아우르는 김치산업을 육성 하겠다"며 "원료 생산 위주의 지역 농업 환경을 가공산업으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백정기 의사의 정신 널리'

정읍시, 19일 백정기 의사 선양사업 활성화 좌담회

윤봉길 이봉창과 함께 대한민국 3의 사로 불리는 백정기 의사의 삶과 정신을 조명하는 좌담회가 정읍에서 마련됐다. 정읍시는 구과 백정기 의사의 순국 91주기를 맞아 오는 19일 오후 4시, 영원면 백정기 의사 기념관에서 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를 연다.

이번 좌담회는 백정기 의사 기념사업회 이흥로 사무국장의 선양사업 추진 사례 발표를 시작으로, 일화회 이도형 회장이 선양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좌담회는 아흐 K로컬콘텐츠연구소 백남이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의 자유 토론도 함께 이어진다.

시는 좌담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관련 기관과 단체에 전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백정기 의사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좌담회 관계자는 "정읍시가 기념사업회가 꾸준히 기리고 있음에도 백정기 의사의 이름은 윤봉길, 이봉창 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좌담회를 통해 백정기 의사의 위대한 항일 활동이 보다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과 백정기 의사는 188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1907년 정읍시 영원면으로 이주해 성장했다.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들어 항일구국연맹, 흑색공포단 등 무장단체를 조직하고 요인 암살과 일제 주요 시설 파괴를 계획하는 등 강력한 투쟁을 이어갔다. 특히 1933년에는 주중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처단하려는 육산정 의거를 계획했으나 실패로 체포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일본 나가사키 형무소에 수감됐다. 그는 1934년 6월 5일, 수형 중 병세가 악화돼 순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사회적 고립·고독사 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업무 협약

부안군은 지난 10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군과 부안경찰서, 부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안청년정책협의체, 부안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종합복지관, 실버복지관,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안군사회복지협의회 총 9개 기관이 참여했다.

군은 고령 인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



적인 소통 구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앞으로 정기적인 네트워크 회의와 사례관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

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기 가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전면 시행

정읍시가 위메프오를 통해 공공배달앱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며 의식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해 지난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위메프오는 중개수수료가 약 2%로 민간배달앱의 2~9.7%에 비해 훨씬 낮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수익을 돌려주는 친소상공인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소비쿠폰 정책의 중심 채널로 활용된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서 위메프로 2만원 이상 주문을 세 차례 완료한 소비자는 다음 달 10일쯤 1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자동으로 발급받는다. 1인당 월 1회에 한해 혜택이 주어지며, 쿠폰은 다시 2만원 이상 주문 시 사용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6월 1일부터의 이용 내역도 소급 적용되며, 매월 최대 3회까지 결제 실적만 인정된다. 이 중 실적 미달된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돼 누적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3회를 초과한 주문은 이월되지 않는다. 기준 금액은 매뉴얼과 배달 대행료를 포함한 총액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25년 고창 국가유산 야행 13~14일 열린다

고창읍성 · 신재효고택 · 오거리당산 일원서... 야간형 문화콘텐츠 · 체험 등 다채

고창에서 5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야행은 '달빛 동행 모양성 구경가게, 별빛 야행'을 주제로 다양한 야간형 문화콘텐츠와 체험, 공연 등을 통해 고창의 국가유산을 다채롭게 체험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고창 국가유산 야행은 8월을 테마로 꾸며져 있으며, '야행(夜靚)'은 개막을 알리는 묵화, 6월 밤을 그리다를 시작으로, 고창오거리당산제를 재현한 퍼레이드 '길곳'과 '당산줄감기', 지역 청소년들이 연주하는 '달빛이 오के

스트라' 국악풍 연주, 전통 줄타기 '은하수를 걷는 예인' 등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무대를 연출한다.

'야로(夜路)'는 고창의 이야기를 배우들이 직접 들려주는 '모양성 이야기꾼' 프로그램과, 쓰레기를 쥘는 환경투어 '모양성 플로깅', 미니게임 '붓집장수를 이겨라!', 그리고 해설사와 함께 고창읍성 내부 돌레길을 돌며 고창의 시간을 배우는 '다같이 놀자'음성 내 한바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야경(夜景)'에서는 판소리박물관

앞 잔디밭에 LED장미와 달·토끼로 꾸민 광장, 소원등을 직접 달 수 있는 체험 등 다양한 빛의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다. 이 외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이 고창의 찬란한 밤을 채울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고창 국가유산 야행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야간축제로 고창의 국가유산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밤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의회, 필리핀 과학고 스카우트연맹 방문 환영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10일 필리핀 바기오시 과학고 스카우트연맹 소속 청소년과 지도자 등 대표단 25명이 부안군의회를 방문한 것을 환영했다.

이번 방문은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계기로 시작된 국제청소년 문화교류의 연장선으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날 대표단은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병래 의장은 "이런 방문을 기회로



국제 청소년들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앞으로는 부안군 학생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